

4과 남북한의 평화
우리는 선(線)을 넘어 만나야 합니다
(창 32:3~33:11)

1. 마음 열기

1) 영상보기



다음 두 영상은 한국전쟁(1950~1953)으로 인해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영상입니다. 하나는 지난 2018년 8월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또 하나는 KBS가 1983년에 한국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특별 프로그램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일부를 남한에 있는 외국 출신의 청년들이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SyEA8MdjQU>

<https://www.youtube.com/watch?v=LJMRcgbTOfQ>



2) 생각 나누기

- ① 두 영상 속 이산가족 상봉 장면과 외국인 청년들의 반응을 본 느낌을 말해 봅시다.
- ② 한반도가 정전 상황이며, 분단된 상태임을 언제 느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③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꼈던 때와 과거에 남북한이 교류하고 협력했던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 봅시다.

1) 영상보기(소요시간: 13분50초)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남북한이 분단의 비극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진행형의 분단국가임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민족적인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권에 관한 영역도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의 인권과 북한주민들의 인권까지 포함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산가족에 대한 인류애적 접근은 외국 출신 청년들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3년 당시 국내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3시간 45분 동안 KBS가 생방송으로 방영한 이산가족찾기운동으로 2015년 10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82%는 북한 가족의 생사여부 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가족의 연령이 고령층이 많아서 1세대가 대면 상봉으로 만날 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앞으로 5년 정도라고 합니다.1)

2) 생각 나누기(소요시간: 10분 내외)

- 다음과 같은 답변은 참조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족과 혈연이 주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뜨거운 만남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 ② 군대에서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북한이 보일 때, TV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할 때, 남북한의 접촉이 언론에서 보도될 때 등...
- ③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언을 할 때, 북한이 일본을 향해 맹비난 할 때, 평창동계올림픽 동시입장, 문화예술공연 교류 등.

2. 생각 짚기(소요시간: 10분 내외)

청년들이 독일 재통일에 있어 커다란 기여와 공로가 있는 동서독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북한의 통일에도 청년세대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필요함을 정리하며 말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독일 재통일에 있었던 동서독 교회의 역할에 관한 기독교계 언론 보도를 발췌, 편집한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며 동서독 교회가 전개했던 기도 운동, 회개 운동, 나눔 운동의 모습을 살펴보시다.

베를린장벽 붕괴(Fall der Berliner Mauer)를 유발한 사건들 중 하나인 구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회가 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의 실제적 역할중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독일교회는 비폭력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에 의한 독일통일의 기폭제가 된 월요기도회를 통하여 1945년 종전 후부터 통일을 이룬 1990년까지 양 체제하의 독일민족에게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였다.

참고: 동서 양 지역을 대표하는 독일개신교회는 나치 하에서 교회가 철저히 항거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한데 대해 회개하는 슈투트가르트 죄책고백(Stuttgarter Schuldbekentnis, 1945. 10)을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 앞에 역사청산을 선언하였다. 독일감리교회(EmK) 역시 1945년 12월, 현재 독일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제 3제국(나찌)의 범죄에 대한 결과임을 지적하는 죄책고백을 했다.
(<http://www.newspower.co.kr/27161>)

동독 출신으로 독일 통일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베르너 크레첼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과 그 이후 통일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전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서독의 지원에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서독의 재정 및 물질적 지원을 허락했다. 이로 인해 동독의 교회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독 교회들이 필요한 자금 중에 약 50%가 서독에서 들어 왔다"
 "따라서 교회는 유지되고, 목회자들은 봉급을 받을 수 있었다. 교회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3개의 대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독으로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매년 수천 개의 서독 교회가 자매결연한 동독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했다"

그는 통일 직후 동독과 서독의 발전양상에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나눔'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크레첼 박사는 "독일 재정 예산에서 동독으로 거대한 재원이 흘러들어 갔다. 따라서 동독의 완전히 낡은 사회간접 자본들이 최신 상태로 보수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동독과 서독 간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동독 사람들의 어려운 상태를 위로하고, 영적 공급을 통해 새

1)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8296.

로운 삶의 가치를 찾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전 독일 교회에게는 나눔의 미덕이 강조되었고, 통일 전에도 동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독의 부를 일부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크레첼 박사는 한국을 위한 조연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많은 서독 사람들은 통일 전과 후에 동독인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통일된 독일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았다"며, "남한은 상대방의 말들을 더 많이 경청하라"고 조언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3247>

앞의 기사는 “뉴스파워”라는 기독교 언론에 실린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현재 독일 칼스루에 베델교회를 섬기며, 칼스루에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임재훈 목사의 글입니다(2015/05/13).

다음 기사는 “크리스찬투데이”라는 기독교 언론에 실린 김진영 기자의 “독일의 통일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2018년 6월 7일에 있었던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의 '독일통일에서의 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의 주 강사가 기사에 등장하는 베르너 크레첼 박사였습니다.

두 기사의 내용은 크게 동서독교회의 기도운동, 회개운동, 나눔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에 관한 내용이며, 두 번째 기사는 나눔운동에 대한 내용을 실고 있습니다.

질문 안내)

- 교회의 대 사회적인 선한영향력에 관해 묻는 질문입니다.
 - 청년들이 동서독 교회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위의 두 기사의 내용은 두 언론사의 기사를 용도에 맞게 발췌, 편집했으며 본문의 내용이 오해가 없도록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3. 말씀 속으로(소요시간: 25분 내외)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야곱과 에서 형제가 재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는 2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호 불신과 갈등의 사건을 시작으로 꽤 오래동안 멀리 분리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재회와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우리가 갖아야 할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1) 압복 나루에서 -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분단선 앞에서

야곱은 20년 전 혼자 남은 그 시내를 이제는 많은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사백 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은 선전포고처럼 들립니다. ‘넘어야 할 작은 시내’는 ‘넘어서기 힘든 분단선’이 됩니다(32:3~6). 야곱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예물’을 보내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형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9~11). 마음의 분단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작은 선(線)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분단선 앞에서 혼자 남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 머무른 시간을 20년이라 명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와 야곱에 대한 살해 보복을 계획하고 있음을 듣게 되어 야곱을 “몇 날 동안” 피신시키기로 했었습니다(27:41~44). 하지만 그 기간은 어떤 이유인지 2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서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기억은 복수심에 불타 오르는 에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25:27). 20년 동안 왕래가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에 대한 야곱의 기억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을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압복 나무에 홀로 남았습니다.

2) 하나님과의 대면 - 네 이름이 무엇이나(회개): 마음의 분단선 넘기

혼자 남은 야곱은 한 사람과의 끈질긴 씨름 끝에 축복의 기회를 잡고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분단선을 넘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죽자살자 씨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생뚱맞은 질문이 날아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27)” 야곱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습니다(27:18~19).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나는 에서로서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서’의 이름으로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야곱은 자기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축복받기 전 야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자기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 질문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음의 분단선을 넘으려면 먼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정체성 회복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회개의 사건이며 동시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됩니다.

야곱의 ‘씨름하다’는 의미에는 ‘재창조(recreation)’의 의미와 ‘포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존재, 에서를 만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가득했던 자기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씨름을 통해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 발견과 자기 갱신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는 질문은 그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정체성 회복’은 같이 갑니다. 자기부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 씨름하는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야곱은 지극히 자기 중심, 욕망 중심 살았던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3) 형제의 대면 - 브니엘의 새 아침(화해): 마음의 분단선을 넘어

마음의 분단선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기정체성을 회복한 ‘새로운 야곱’은 이제 형의 얼굴을 대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마음의 분단선 저편에서 두려움에 떨며 가족의 맨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맨 앞에 섰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였고, 이는 종이 주인에게 하듯 예를 갖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형은 ‘달려왔고’, 형제는 감격의 포옹과 인사를 나누며 ‘서로 옵니다’.

마음의 분단선을 넘으면 화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인 야곱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한 자기정체성 회복이라는 원인제공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증표로 형에게 ‘예물’을 전합니다. 전에는 미움과 증오라는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한 ‘뇌물’이었으나 이제는 그 ‘뇌물’이 기쁨과 감사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형에게 평화와 친교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과 ‘선물’이 오가며 형제의 화해는 온전해집니다.

위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의 재회와 화해의 과정을 보면서 남북한 관계가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데 적용 가능한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야곱과 에서의 재회는 20년 전의 상황 망각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조상의 땅과 그 족속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31:3). 모든 분단 상황을 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분단, 땅의 분단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두려운 존재인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는데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부를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예물을 준비한 목적은 ‘형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32:20) 그러나 똑같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 달라진 정체성으로 보내는 “예물”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풀고,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한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격스러운 만남으로 형제로서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질문 안내)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 하지만, 과거 좀 더 상황이 진전되었던 순간들도 회상하며 무엇이 달라졌을까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미래에 좀 더 진전된 상태를 기대하는 희망의 말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 답변:

남북한의 상태가 ‘분단선 앞에서’ 멈춰진 듯한 대부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간혹 이산가족상봉이 이어지던 2000년대 초반같이 마치 “형제의 대면”처럼 남북 관계가 원활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남북 관계는 아직 분단선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랜 미움과 증오 그리고 두려움과 무관심이라는 단절의 기간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채 말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쉽게 정리된 내용이기에 구성원들이 한 사람씩 천천히 읽어가며 의미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4) 남북한 평화와 통일: 민족 화해와 교류 협력

다음은 야곱과 예서의 재회와 화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의 분단선, 국토분단 정치분단 민족분단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상호불신과 증오로 대립의 날센 각을 세운 세월들과 평행선만을 달리던 민족 이질화의 상황을 민족동질상 회복과 화해를 위해 직시해야 합니다. 분열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일을 통해 남북 모두 상호신뢰와 민족화해의 길을 찾아 평화와 재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남북한은 남북한의 분단선을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미움과 증오라는 마음의 분단선을 넘어야 합니다. 마음의 분단선을 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의 정체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진행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이라는 철저하게 분리된 ‘민족 이질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은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적대적 씨앗이 되어 결국 만나질 수 없는 ‘상호불신의 고착화’로 평행선을 만듭니다.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한 민족화해의 발걸음은 다시 7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인내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③ 남북한 동질화의 정체성 회복과 민족화해를 위한 첫걸음은 남북이 모두 ‘상호불신, 미움 증오’를 만들었던 정체성의 오류를 정직하게 상호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분단선을 넘기 위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 회개는 ‘신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④ ‘회개’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에 남한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가복음 8:33~35에서 ‘제자도’로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불신과 미움,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의 분단선에 자기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⑤ 남북한은 마음의 분단선을 넘어 만나야 합니다. 고착화된 상호불신의 관계를 상호신뢰의 관계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도 ‘만남’뿐입니다. 만나다 보면 오해와 갈등, 미움과 증오의 원인도 알게 되고, 해결책도 찾게 됩니다. 교류 협력이 답입니다.

⑥ 마음의 분단선을 넘어서 만날 때는 무엇인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마음이 달하면 ‘분단선’은 ‘차단선’이 되지만, 마음을 열면 ‘분단선’에 ‘통행선’이 생깁니다. 받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나눔은 상호신뢰를 쌓게 하고 화해의 길을 넓혀주며,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민족 화해의 통

로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야곱과 예서의 만남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통일운동(마 5:43~48)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무관심과 두려움의 적대적 마음의 분단선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자기 십자가를 세워 예수를 따르는 일.

둘째는 사랑의 나눔 운동(눅 10:30~37)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일.

셋째는 회개 운동(눅 15:11~32)
 이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이키며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일.

함께 하는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존중과 신뢰), 공유(나눔-화해, 회복), 동행(동거, 상호상생과 공존)의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4. 삶에 접속하기(30분 내외)

- 1) 남북한이 마음의 분단선을 넘어서는데 해결해야 할 큰 장애물들을 아래 ①번 칸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 2) ①번 칸에 적은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 ②번 칸에는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봅니다.
 - 3) ②번 칸에 적은 방법들 중에서 ③번 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내용들을 적어보고, ④번 칸에는 그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동참할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봅니다.
 - 5) ④번 칸에 적은 내용 중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골라 표시해 봅니다.
 - 6) 정리한 내용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 ① 이질화된 언어
- ② 탈북민 친구 사귀기, 남북한 말 번역 어플 사용, 북한말로 일기 쓰기

③ 탈북민 친구 사귀기	④ 남북한 말 번역 어플 사용 ✓ 북한말로 일기 쓰기

-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 혹은 잘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읽어주거나 때로는 한 주제에 서로의 생각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7)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작성 후에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그중 한 사람의 기도문을 선택하여 기도함으로 모임을 마칩니다.